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 병역거부 가이드북

전쟁없는세상 지음



#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다시 내며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조언을 해 주고, 그들이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을 주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고민하며 전쟁없는세상과 상담을 했고 그 가운데 50여 명이 실제로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민의 깊이에 비해 병역거부자가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없는세상은 2004년에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병역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수감 생활은 어떤지 같은 내용을 묶어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북 개정판을 내기 전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쉽게도 그 바람은 다음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바뀌어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거부했던 조선인 첫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고 74년, 2001년 오태양 씨가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가 한국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이 된 지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군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간다는 변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실에 10년 동안 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이드북> 개정판을 내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전쟁없는세상 여옥과 병역거부자 날맹, 상우가 작업하던 것을 병역거부팀이 이어 받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병역거부자가 작업을 하던 와중에 감옥에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판 가이드북의 기본 구성은 예전 가이드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병역거부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출소 후 삶에 대한 이야기, 예비군 훈련 거부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0년 동안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

부자를 후원한 사람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자기 이야기를 써줬다는 점입니다. 병역거부자들마다 겪는 과정이나 수감생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분은 간소화 했습니다. 때때로 개정 되는 구체적인 법률은 뺐고(인터넷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목록이나 사이트들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개정판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이드북>은 소셜펀치 모금을 통해서 만듭니다. 선뜻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차례

---

<b>병역거부 가이드북을 다시 내며</b>	<b>3</b>
<b>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b>	<b>8</b>
<b>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b>	<b>13</b>
가족한테 이야기하기 · 감옥 가는 일을 고민하기 · 군대에 대해 깊이 생 각해 보기 · 내 아들이 병역거부를 한다면	
<b>한눈으로 보는 병역거부 절차</b>	<b>24</b>
<b>수감생활</b>	<b>25</b>
재판을 받고 받고 구속되는 경우 · 재판을 받은 뒤 나중에 구속되는 경우 · 감옥 일상 · 출역과 이감 · 직업훈련과 교육생 · 접견(면회) · 감옥 안에서 아플 때 · 감옥에서 부당한 일과 맞서기1-지문날인 거부 · 감옥 에서 부당한 일과 맞서기2-채식권 · 가석방과 출소	

---

**출소한 병역거부자 이야기** 48

네 삶을 거쳐간 한 부분 · 공백과 단절의 시간 뒤에 · 질문과 마주하며

**예비군 훈련 거부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 58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서 · 7년째 재판 중-예비군 훈련 거부 사례

**후원회 만들기** 66

후원모임의 중요성 · 후원금 모금 · 수감 후 해야할 일-외부와 소통 · 영치금과 영치품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71

병역거부 관련 책 ·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 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는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약칭 CO)라고 부릅니다. 병역거부자는 특정 무기 사용이나 특정한 전쟁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다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 기독교 소수종파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는 다른 정치적 병역거부 흐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 및 징병거부에서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는데 처벌 내용과 강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처벌 기간이 길어야 징역 1년이었고 정부도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형량이 점점 늘어나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을 선고하여 5년, 6년씩 감옥에 가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80년대에는 항명죄로서는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현역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든 1994년에는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이 오히려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 본격적으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기 전까지는 일괄적으로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은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나 항명죄(군형법 44조) 위반으로, 다시 징집되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인 1년 6월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갔지만, 이 문제가 한국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왔었는

데, 2001년 말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이 공개적인 병역 거부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 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위헌심판제청, 무죄선고,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 권고 등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권은 본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에 관한 권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는 <세계인권선언>(1948)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및 병역거부자의 처우와 관련된 권리들은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헌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도출되는 유엔의 각종 결의안과 권고안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1980년대부터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통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에서 병역거부권이 도출됨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 1990년에 ICCPR에 가입을 했지만 여전히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예전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신청한 개인청원에 대해서도 한국이 가입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리면서 재발방지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유엔헌장 및 자유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관한 각종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세계인권선언과 일반적인 유엔의 인권관련 결의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병역거부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거나 실시하며 사회복지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중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나라들입니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독일과 대만은 최근 징집을 중단하여 대체복무제도 역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2008년에 이 약속은 뒤집혔습니다. 정부의 변덕과는 상관없이 군대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

람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병역거부자들은 묵묵히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병역거부자들이 감옥 대신 다른 방식의 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겠지요. 그렇다고 병역거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가 품고있는 군대와 국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감옥에 구애받지않고 더 다양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군사훈련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군대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실천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한걸음 더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군대 대신 감옥에 다녀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병역거부자가 된다는 결심은 평생을 병역거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평생 동안 던지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때는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거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병역거부를 하는지, 군대를 왜 가기 싫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역거부를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현실인 만큼 감옥에 가는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갇혀 사는 일은 물론 스스로 책임질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

연히 수감되어 있을 동안 밖에서 맘고생하면서 여러 편의를 봐 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모아봤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이 실제 자기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군대나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감옥에 간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썼습니다. 병역거부자 어머니가 쓴 글은 부모님들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글들이 모든 병역거부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병역거부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족한테 이야기하기

성민 | 병역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사실 난 흔히 말하는 효심 같은 건 별로 없었고 ‘가족’이라는 제도나 관계에 대해서 그리 애착을 가지는 편도 아니었다. 또한 내가 병역거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인다거나 하는 우려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이라는 이름 하에 병역을 거부했다면 기피했다, 그 가족까지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거나 주변 시선의 영향을 받는다. 특

히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 라는 평가는 부모님에게는 큰 스트레스이자 수치심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병역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야 나 스스로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병역거부를 ‘선택’ 하는 것이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저 통보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내가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동의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받고 싶었다. 어느 날 아빠를 카페에서 만나 병역거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얼마 뒤에 가족회의를 열게 됐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 결정을 대체로 존중해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인지 나는 부모님이 내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 한다고 했을 때 당황했다. 학교나 활동을 쉬고 아예 고향집으로 내려가 거의 일 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 스스로도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병역거부자)이 됐나 궁금했던 만큼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성장과정이나 가치관의 형성 등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성적은 어떠냐 취직은 어떠냐 밥은 먹었냐 하는 형식적인 대화만이 아닌 서로의 고민과 깊은 생각들,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저 키워준 사람이 아닌 가장 오래되고 친한 친구이자 서로에 대한 가장 가까운 지지자로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었다. 할머니나 이모 등 친척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해를 받을 수 있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시는 우리 부모

님은 여전히 내 병역거부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신다. 부모든 친척이든 내가 실제 겪을 고통을 가장 염려하시고, 출소한 뒤에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어떤 논리보다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과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관 및 삶의 방향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그저 일방적으로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욕구를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했다.

병역거부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건 단지 병역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다. 삶이든 병역거부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오고 고민과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과의 대화도 이런 태도로 해 왔고 하고 있다.

## 감옥 가는 일을 고민하기

길수 | 2011년 11월 병역거부

감옥 생활에 대해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다른 수감자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수감자로서 감옥 안의 억압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과 연결되었다. 입방 순서에 따라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등, 마치 군대 내무반처럼 위계로 짜여진 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다. 감옥 안의 질서를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바꾸기는 벅찰 테니, 일단은 나 자신이 안 다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던 것은 감옥 자체의 힘겨움보다는 출소 이후 전과자로서 직업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문제였다. 만약 내가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 하거나 전과자라는 게 밝혀지면 날 멀리할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거부 선택을 훨씬 주저했을 것이다. 나는 출소 후 계속하여 공부를 할 것이고,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귀촌 등을 삶의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경우보다는 편하게 병역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내가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생각했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장애는 어떤 경우든 생기기 마련이다. 또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곧 사회에 순응하는 삶일 것이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불이익을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자기 삶을 조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전쟁없는세상’ 과 같은 다른 군사주의 반대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그런 삶을 서로 지지하고 북돋아주는 좋은 버팀목일 것이다.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지지와 연대를 쌓아가고 유지하는 것이다. 나 혼자 병역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더 힘들다. 그러나 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오던 관계들 속에서 병역거부라는 구체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운동과 실천을 계속해 가는 것이다. 그런 각자의 실천들에 대해 계속해서 소통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다.

병역거부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홀로 내 삶의 일부분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피해자화하게 마련이고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온 사람들과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다. 병역거부를 선택한 내 실천이 지지를 받고 그 안에서의 경험과 고민들을 밖으로 알리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 역시 지지를 받고 알려져야 하며, 일방향적인 후원이 되지 않도록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관계들이 굳건해질수록 감옥에서 생활, 이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 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길준 | 2008년 7월 병역거부

병역거부의 절차적 과정들은 다른 부분에서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

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거부자 스스로가 가지는 고민의 시간들이죠. 저 또한 그랬어요. 가족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래도 차마 군대를 선평 가진 못하겠어서 다니던 학교를 3년 정도 휴학하며 입대를 연기했었지요. 제게 군대는 자신의 신체와 공간적·시간적 자유가 국가에 의해 구속당하고, 그 구속된 것들이 언제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꼭 어디 참전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입대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반복되는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 고민 속에서, 전 결국 더 이상 가족이란 벽을 넘지 못하고 입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총을 쓰는 훈련을 받는 육군보단 낫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의경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군대란 게 어떤 건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훈련소에서, 그리고 부대에 배치되고 나서 여실히 느껴진 건 제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몸이 힘든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무엇을 위해 몸이 힘들어야 하나를 생각하다보면 답답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끊임없이 주어진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그 과정의 충실한 실행만을 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 안에서는 어떤 마음을 먹든 그 분위기에 눌러

최대한 조용히 그것에 따르게 되기 쉽더라고요.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 그래서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기계가 되는 거죠. 개인이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그에 대항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부대 안 생활에서부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후임을 ‘갈궈야’만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든 것 자체가 괴롭더군요.

결국 촛불시위 상황에서 시위 진압에 매일 투입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어요. 그 때 병역거부를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시스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바꾸기는 너무 어렵고, 문제가 있는 건 군대라는 제도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편으로 안에 계속 있으면 제가 망가질 것도 같았어요. 병역거부를 하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며 드렸던 말도 그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가 남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별 수 없지 않을까하는 얘기.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 경험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찌면 입대 전에 군대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군대는 사회적 통과의례 중 하나이고,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제 선택의 순간도, 그전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의 순간이었지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것에 있어, 군대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회 전체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저항방식으로서 병역거부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당신은 왜 병역거부를 했는가?’ 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데 유의미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 내 아들이 병역거부를 한다면?

윤혜숙 | 병역거부자 은국 엄마

당신의 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를 한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게도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설마 저 아이가 감옥에 가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람에 대한 기사는 읽어보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기에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를 아들로 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감이 됩니다.

구치소에, 교도소 유리창 뒤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런 결심을 말하고 만류하고 공감하는 것은 아직 당한 일이 아니니까 웃으면서 또는 화내면서 술을 마시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장 안에 자식이 있을 때, 의연한 척하지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어디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절망감. 저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친구, 친지, 이웃들 중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미쳤어! 군대를 안 가다니. 그걸 가만 뉘? 엄마가 죽는다고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시간이 갑니다. 편지가 오고 면회를 가고 물건을 사 넣어주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겨우 10분 바라보면서 먼 길을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서서히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 네가 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해라. 너 하나가 씨가 되고 빛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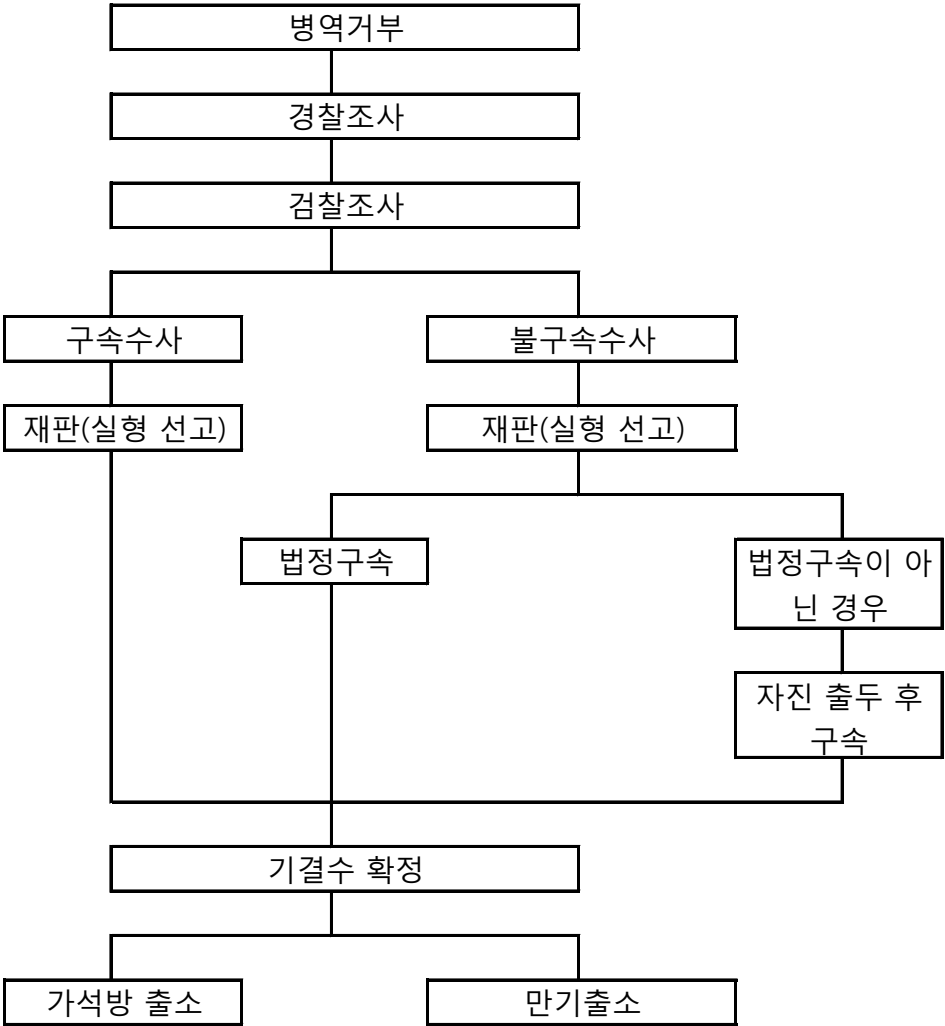
부모가, 가족이, 형제가 힘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거나 갈취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런 의지와 정신을 지닌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고귀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아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내 가족은 자식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누나와 형이 그들을 안아주어야 그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 갈 것입니다.

면회를 하고 돌아서서 길이나,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도 울었던 날들도 지나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겨울도 지나가고 지독하게 더운 여름도 지나가더군요. ‘건강하고 열심히 잘 지낸다’고 믿으면 그 안에서도 역시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아들을 믿어주세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안아주세요. 가족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 한눈으로 보는 병역거부 절차





# 수감생활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형기의 75%를 복역하고 가석방되더라도 꼬박 1년 2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감옥이 아니라도 신변의 변화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수감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압박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감옥이 많이 좋아졌다고도 하지만 아직까지 수감생활은 많은 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당일부터 출소하기까지 그들의 수감생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유죄 선고 후 석방되기까지 거치는 경험과 감정은 각 법원, 수감시설, 방실, 병역거부자 자신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감 기간에도 출역을 나가거나 교육훈련을 받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곧바로 토로하거나 상의를 할 수 없는 현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 견디기 힘들기도 할 테고요. 먼저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안내를 통해 감옥 생활의 밑그림을 그려 보세요. 본격적인 수감생활은 여기 설명된 내용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관계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 역시 꼼꼼히 살펴보고, 수감 기간 동안 불편하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원회와 소통하거나 단체의 조력을 받아 대처합니다.

## 재판을 받고 바로 구속되는 경우

김영배 | 2010년 3월 병역거부

2010년 6월 24일 아침, 10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러 명의 지인들과 법정 앞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사실 ‘법정구속’ 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별다른 인사 없이 덤덤히 들어갔더랬죠.

하지만 선고 말미에 덧붙인 판사의 말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법정구속. 판결이 끝나자 판사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제가 말을 마치자 진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제 팔을 잡고, 법정 원편에 있는 문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같이 와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와 지인들이 걱정할까 싶어 웃으

며 인사를 두어 번 하는데, 그 사이 문이 닫혔습니다.

옆으로 옮겨진 그 공간은 양 법정사이에 있는 대기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던 가방, 옷 주머니에서 위험물품(칼, 라이터)을 찾아 폐기한 뒤 소지하고 있는 귀중품(현금, 반지, 시계, 휴대폰 등)은 따로 담아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 간단한 검신을 하고는 바로 수갑과 포승이 채워졌습니다. 한 쪽에서는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온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나란히 앉아계셨고, 저는 저와 같이 10시 선고에서 법정구속되신 분들과 포승으로 연결되어 다른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선고가 모두 끝난 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그 방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두 명도 같이 탔구요. 가방을 혹시 빠뜨리면 어떡하나 잠시 걱정했는데, 계속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군요. 직원들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친절함(?)을 보여주었으나, 몇몇 분들은 조금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놀란 상태이기도 하고, 심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저항없이 따라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긴 복도를 두세 번 반복하며 간 곳은 ‘미니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몇 개의 구금시설(방)이 있는 공간으로 그 곳에서 간단한 검신을 거치고서 수갑과 포승을 풀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 같이 가서 한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누워 있다가, 책 몇 권을 들춰 보다가, 같이 들어온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

다. 서로가 다들 억울하다는 얘기뿐이었고, 제 경우는 병역거부로 왔다는 말에 “증인이냐”는 물음,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거의 끝나고,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몇 분은 ‘뺑’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에 일일이 귀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을 나름 편히 쉬다가 나와 다시 수갑을 차고 포승을 묶어 연결한 뒤, 직원의 지시에 따라 건물 밖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나간 곳은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건물 느낌이 웬지 몇 번 가보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외벽 같았습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잠시 머리를 스치고 지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곧 법무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포승으로 연결된 채로 5명이 차곡차곡 앉았고, 다른 두 명이 또 들어와 앉았습니다. 버스 앞 뒤로는 직원들과 경교대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2시 반 경에 영등포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검신을 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수갑을 차기 전에 별도로 보관한 귀중품 및 소지물품의 내역을 직원과 같이, 정확히는 직원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지켜보며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서 넣고, 이곳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은 임시로 가운 같은 것을 걸치게 줍니다. 신발도, 옷도, 짐도 모두 가방에 담아 넣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서 기본 가족관계와 신상정보를 기재하며 몇 가지 안내,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어진 공간으로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와 사진촬영, 그리고 향문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는 칸막이로 가려진 곳에서 쭈그리고 앉으면 바닥에 있는 기계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잠깐 멈칫!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라며 씩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사용할 기본물품을 받았습시다. 개인 물건을 보관할 플라스틱 박스, 3가지 크기의 그릇과 플라스틱 수저, 상하의 관복, 속옷 한 벌과 치약, 칫솔, 비누 하나씩… 이렇게 다 받고나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들 5명을 방으로 안내하면서 방금 점심시간이 지났으면서 밥, 국, 반찬 등이 담긴 통을 함께 주었습니다. 다행(?)이도 5명이 한 방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있던 분들께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식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속이, 기분이 별로라서 못 먹겠다며 먹지 않았는데, 저와 다른 분들은 열심히 먹었습니다. 나 혼자 외딴 곳에서 잘 버티려면 ‘잘 먹고 잘 자야된다’ 고 생각했거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서 좀 쉬고 있으니 흰 천에 도장으로 찍은 듯한 방 번호와 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건 딱풀로 상의에 붙였습니다. 잘~ 붙더군요

그리고 조금 뒤엔 첫 면회를 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손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갇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단단히 여미게 됐습니다.

## 재판을 받은 뒤 나중에 구속되는 경우

날맹 | 2010년 12월 병역거부

저는 2011년 3월 30일 선고를 받고, 4월 11일에 구속 되었습니다. 법정구속을 예상하고 재판정에 갔는데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선고는 하되 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넣진 않은 거죠.

선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가 뜬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건 판사의 몫인데 그 형을 집행하고 지휘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항소를 할 거냐고 물어보았고, 항소 안 할 거라고 했더니 그럼 저더러 0월 0일에 검찰로 직접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에 제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주말을 한 번 더 보내고 들어갔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담당 검사에게 한번 물어본 뒤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의 구속 예정일이 정해졌습니다. 보통 ‘형 확정 사범’ 들은 검찰 집행과 직원들이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저희 같은 ‘병역법 위반’ 사범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자수를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제 발로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딴겠냐만, 본인이 미리 예상하고 감수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검찰 집행과 직원과 약속한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친구들과 서부지검 정문 옆에 있는 빵집에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잘 오고 있느냐” 는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 건물 1층 로

비에서 드디어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로 저를 호송할 직원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지금부터 내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던 순간들이었습니다.

## 감옥 일상

용석 | 2005년 12월 병역거부

감옥 안에서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다. 나는 구치소, 교도소 모두 네 군데를 다녔는데, 교정시설마다 혹은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대동소이하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 재판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일 경우와 기결수지만 일할 자리가 없거나 일하는 것을 거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침에 기상시간 6시30분~7시가 되면 모두 함께 일어나서 관복을 차려입고 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는다. 아침 먹기 전에 세수를 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방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자유 시간이다. 신문을 보거나,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거나, 방사람들과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한다. 잠을 자도 되는데, 이불을 펴 놓고 자면 뭐라고 하기도 한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저녁을 전후해서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한다(아침에도 틀어주는 수감 시설도 간혹 있다) 텔레비전은 채널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나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주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낮 시간 동안 접견이 오면 접견을 나가기도 하고, 방마다 돌아가면서 운동을 30분 동안 한다.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수 목욕을 하는데, 온수 목욕도 운동처럼 낮 시간에 방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저녁 점검 후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교도소의 하루 공식 일정도 끝난 셈이다. 편지도 운동도 접견도 없다.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올 수 없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취침 시간 9시~9시 30분이 되면 텔레비전도 꺼지고 방 불도 조도가 낮아진다. 방 불은 애매한 밝기인데, 책을 보기엔 너무 어둡고 잠을 자기엔 너무 밝다.

일을 하는 경우도 기본은 일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다만 아침식사를 한 뒤 저녁 식사 전까지 공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만 다르다. 접견이나 운동 같은 것들은 일하는 도중에 진행된다. 간혹 출역장에 따라서 아침 먹기 전에 일하러 나오거나,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일을 하더라도 수감자들도,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방에서 지내게 된다. 단 이 경우도 일에 따라 취사장이나 교도소 청소처럼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한다.



## 출역과 이감

뎡 | 2005년 11월 병역거부

좁은 공간의 고립된 답답함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출역이다. 출역이란, 수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업무(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간병하는 일, 사무보는 일, 외부 공장 등등)에 수감자들이 노동함으로써 일종의 작은 섬 내부의 사회생활이라고 보면 된다. 일하는 동안에는 좁은 방 밖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는 출역하는 게 좋다. 물론 읽어야 할 책 목록을 산더미처럼 준비해놓고 수감된 사람이야, 자신감만 있다면 계속 책만 읽어도 된다. 그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다보면, 결국 마음이 피폐해진다. 그리고 노동하는 편이, 시간도 빨리 간다. 수감생활동안 시계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다. 출역을 통해 수감자의 급수(모범적 생활과 복역기간에 따라 급수가 매겨진다)가 올라가면 면회 일수와 전화통화 횟수가 늘어나니 고마운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

출역은 공식적으로는 수감자들의 교정을 위한 과정이지만,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슨 교정이 필요하겠는가. 원죄의식이 강해 이것도 쫓값을 치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답답함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처우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결정적으로 가석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만 알아두자.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수감생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나마 빨리 출소하는 게 낫다. 우리는 죄인도 아닐 뿐더러,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닌가. 모든 수감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내되, 출소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다. 하지만 같은 작업장 수감자들과의 위계서열적 관계가 전디기 힘들다면, 방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출역을 취소하게 되면 다음 출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한다.

구치소에서 출역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면, 구치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순 없고, 남은 수형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일종의 이사를 가게 되는 셈인데, 이감을 가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편의대로 이감일시와 장소가 결정된다. 자신이 특별히 요청하거나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다. 병역거부자들은 초범(?)이기 때문에 초범용 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니고 있던 회사를 옮길 때에도 처음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이감도 마찬가지인데, 수감시설마다 약간의 분위기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적응에 조금 애를 먹는다. 그래서 한 교도소에 5년 이상 지낸 사람들은 타 교도소로의 이감을 대체로 원치 않는다. 하지만 행정편의상 원치 않아도 가야될 경우가 있다. 교도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먼저 들어간 사람의 위계서열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교도소로 가게 되면 다시 막내생활부터 시작이니 대체로 원치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도소가 구치소보다는 수감환경이 좋은 편이니(군산 교도소의 밥맛은 서울구치소에 비하면 일급 레스토랑 수준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구치소 출역에서 행정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노동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출역을 통하여 구치소에 남을지 떠날지는, 가족 또는 지인들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

## 직업훈련과 교육생

안지환 | 2010년 11월 병역거부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의 '정예직업훈련과정'은 전국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모집, 소별 TO에 따라 선발하여 훈련과정이 설치된 교도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 개별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체로 연초(상반기 모집) 1회, 6월경 1회 모집하는데, 모집 기간에는 소내 방송 및 TV 방송 종료시에도 안내를 해주므로 가급적 텔레비전을 전원 내릴 때까지 켜 두면 좋다. 6개월 과정도 있지만 교육기간은 대체로 1년 이상이며, 잔여 형기가 훈련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실제 석방일이 아니라 형기만료일 기준(1년 6월)이므로 병역거부자들도 시기만 잘 맞으면 1년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서울남부교도소의 경우 훈련소에서 큰 사고가 몇 차례 있었고, 훈련소에서만 허가되는 물품들-칼이나 음식 부자재, 각종 공구 등- 때문에 생활제약이 여타 출역수에 비해 심한 편이다. 훈련이 시작되면 정신없이 바빠진다. 정식 국가검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므로 훈련과정이 빠빠하게 계획되어 있다.

석방 전에 교육이 종료되면 원래 있던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한다. 구치소에 있던 경우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교도소로 이감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이때는 훈련소가 있는 교도소에 출역신청을 하여 남을 수도 있다. 형기의 1/2-2/3지점 사이의 행형성적이 평균 8점 이상이어야 1급수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 이감으로 출역을 못하게 되면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남은 기간 등이 잘 맞아야 출역이 되므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출역장에서도 받아주는 편) 훈련 신청 전에 종료시점과 형기(가석방시기)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아예 1년짜리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간 도중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다.

## 접견(면회)

지선 | 병역거부자 이준규 후원회장

접견은 일반접견과 화상접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상접견도 1회의 접견 횟수에 포함이 되며 접견 횟수는 수용자의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결 수용자와 기결 1급 수용자는 매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나 2급 수용자는 월 6회, 3급 수용자는 월 5회, 4급 수용자는 월 4회로 접견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2급, 1년이 지나면 1급 수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견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면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기본 3명이나 5명까지 가능한 소도 있습니다. 1급 수용자의 면회라도 하루 1회이므로 한 사람이 접견을 혼자서 하게 되면 그날 다른 사람은 접견이 불가능해지니 후원회 등을 통하여 미리 접견 상황을 논의하면 좋습니다. 접견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 까지만, 접견 접수 시간은 8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4시 이후로는 접견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4시 이전에 접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견 신청은 당일 해당 기관의 민원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미리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이나 전화(1544-1155)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접견을 가지 않는다면 이후의 접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꼭 취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접견을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그 먼 길을 가셔도 문 앞에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수용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존비속, 형제자매로 평일에 면회하지 못한 가족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에 따라 가족이 아닌 사람도 토요일 면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외 접견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접견이 있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접견 횟수, 가족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1회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과 1시간 정도 다과 나눔)나 '가족 만남의 집' (교정 기관 내 설치된 건축물에서 가족과 1일 숙박), '귀휴' 등의 행사 역시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알몸 검신(정밀 신체검사) 등의 인권 침해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일 뿐,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매우 다르니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접견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감옥 안에서 아플 때

효웅 | 2006년 3월 병역거부

아무래도 수감생활에 있어서 아픈 거만큼 서럽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료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권 내지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픈 것이 피병인 양, 죄인인 양 취급 받기도 하는 곳이 수감시설이기도 하니깐요.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한 구속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은 치료하는 게 좋지요. 특히 치과 진료는 충치 치료 하나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 꼭 진료를 받고 가세요.

일단 수감생활 중 몸이 아프거나 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도소내 진료의 대부분은 사동청소부를 통해서 보고전(주로 교도소 내에서 보고를 할 때 제출하는 종이)을 통해 진료 전달이나 해당일 아침에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양식은 수번,

이름, 사동(방주소)을 쓴 뒤 〈내용〉 부분에 “의무과 진료를 신청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의무과를 가는 시간이 있으며 사동에서 사람을 모아서 사동주임 등 교도관이 인솔하여 단체로 의무과에 데려다 줍니다. 의무과에 가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수변을 호명하면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의무과 소속 의사 혹은 의무과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환자로서 자신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행정상 제대로 진료를 해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사동주임이나 관구계장 면담을 보고전을 통해 신청하거나, 위급할 시에는 변호사나 교도소 내 고충처리반 → 법무부 인권국 → 국가인권위 등 상위의 순서로 문제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안면마비가 와서 힘들었는데요, 안면마비라는 것이 통증이 있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서 스스로 힘들었습니다. 안면마비 후에는 사동청소부들한테 뜨거운 물을 부탁해서 마사지를 하면서 호전되길 바랐는데 완치되진 않은 듯 싶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에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외진을 자주 가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했는데요, 교도소 의무과 내에서는 아무래도 외부병원에 비해서는 의료장비나 시설도 열악할 뿐더러 환자로서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피력해야 합니다. 외진을 나갈 정도의 병이라고 한다면 의무과 직원들에게 의견을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픈 느낌이 온다면 무엇보다도 절대 참지 마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진료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감기약이나 연고, 비염약이나 혈액순환제, 간 치료제, 시린이 치약, 영양제 등의 약품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통해서 약품구매를 할 수 있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들은 의무과에서 주거나 외진을 통해서 외진 약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과나 안과의 경우에도 가벼운 경우에는 교도소 내 의무과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겨울에는 추운 동상이나 안면마비, 감기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난방이 되긴 하지만 특히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런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양말을 여러 겹 신는다는지, 마사지를 자주 하고 사동청소부에게 뜨거운 물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하고, 항상 이불을 잘 덮고 자는 예방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질병이 발생한 후라면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동에는 일반사동과는 달리 난방이 좀 더 자주 들어오고 아무래도 교도관들이나 재소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감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감옥이라고 해서 별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징역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가 아픈 경우 절차를 활용해서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옥에서 부당한 일과 맞서기1-지문날인 거부

이승규 | 2005년 6월 병역거부

제가 지문날인을 거부하면서 수감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한 건 수원구치소로 이동할 때부터였어요. 가지고 있던 물품 중 옷이나 책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영치를 하면서 그걸 확인하는데 지문을 날인하라는 거였어요. 전 그때 지문날인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때도 지문을 찍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약간의 다툼 끝에 서명으로 대체하고 이후 정확히 명칭은 모르지만 학교의 생활기록부처럼 같은 명부에도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공백으로 나왔지요.

그러다 저에게 아주 불편한 문제가 생겼어요. 영치금으로 식품이나 생필품을 살 때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지문날인을 거부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문날인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교도관은 지문날인 없이 부정하게 물품 구매서를 쓸 수가 없다는 명목으로 구매하려던 물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회 온 사람들이 사준 것들도 영치금으로 환불을 당했지요. 그 담당자는 저에게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 한 이 영치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고,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가 바로 인용(認容, 인정하여 용납)하지 않아 병역거부운동을 한 이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치소측이 무상지급물품을 제게 더 주는 등의 조

치를 하였지만 결국 김천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선 옷이나 책 그리고 등기우편을 수령할 때 서명으로 대체하게 해줬는데, 김천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지문날인 이외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요. 교도소측에선 (여호와의 증인 등 병역거부자들을 많이 수용한 곳이어선지) ‘너의 신념은 알겠으나 우리 규정에 협조하라’ 며 회유하고, 기결수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생필품을 더 주는 식으로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영치금을 써서 생필품을 사야하는 현실에선 이들의 회유책은 새 발의 피였지요.

이 지문날인 거부는 같이 있는 다른 재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암초였지요. 구내공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내 생각을 약간이나마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일한 수용자이발 출역장에서는 제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교도소측과 상의 끝에 구내공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물론 제가 있었던 김천교도소는 주로 20대 초중반 을 수용한 소위 청년교도소라서 상대적으로 구성원의 구매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곳이라 이런 문제가 갈등까지 가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분명 상하 위계구조가 싫은 본인으로서도 그저 차악으로 선택한 결정이었고요.

한 끼 단식 등으로 교도소측에 항의하며 지내던 중, 2006년 7월 3일 ‘수용자 확인을 지문날인만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소측은 본인이 처한 불편함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 지문날인 문제는 여러 갈등을 겪고 출소하기 직전에야 해결될 수 있었지요.

## 감옥에서 부당한 일과 맞서기2-채식권

아하 | 병역거부자 상우 후원회장

2011년 7월 6일 익일특급으로 상우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상우가 여주교도소에 채식권을 청하였으나 거절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현재 여주교도소의 채식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채식권을 보장 받으려는 이유 그리고 외부단체에 의견서를 요청하는 내용과, 각 단체들로부터 의견서와 조언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채식권에 대해 진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식사 중 (젓갈, 쇠고기 다시다를 포함한) 고기, 생선, 해물류가 안 들어간 채식반찬이 하루에 한 두 가지뿐이라서 (참고로 1식 3찬, 하루에 총 9찬) 그동안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먹으려 노력하였으나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취장 담당 주임과 전화통화로 요리하지 않은 당일 급식에 쓰이는 생 채소라

도 좋으니 채식주의자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 하였지만 예외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나의 요구는 채식 주의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 받기를 원하는 건데, 취장 측과의 면담이 결렬된 만큼 특별한 배려의 요구가 아닌 정당한 권리의 요구로써 인권위나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려해....' (이상 상우 님의 편지 글에서 발췌)

상우가 작성해준 요청글, 이후 면회와 편지를 통해 소통한 내용을 정리하여 채식단체와 법률단체에 연락하고,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여 옥을 통해 재소자 인권단체에 연락하여, 다른 채식주의자 재소자의 대우와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소자 인권 단체에서 준 의견은 교도소에 물리적 항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부식(두유, 견과류, 과일 등)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채식을 지켜내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전자는 상우가 개인의 채식식단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재소자의 채식권을 보장받기를 원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원하지 않아도 상우가 이미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종교인과 외국인에게 개별적인 급식이 주어지고 때에 따라 채식급식이 주어지는 것을 다른 재소자들도 채식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야기 해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51개 모든 구금시설 취장 담당 주임들을 상대로 전화 인터

뷰를 하여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채식주의자에겐 채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베지닥터>를 통해 의견서를 수렴하였고, 이를 첨부하여 상우가 2011년 12월 초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14일 인권위에서 상우와 조사관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면담에서 조사관은, 2012년 1월 경 법무부에 채식인 및 환자를 아우르는 식생활에 있어서의 약자들에 관한 별도의 지침(예를 들어 자비구매를 통한 외부음식 반입과 같은)을 마련하라는 권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법무부도 긍정적인 답을 하였지만 제도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사건이 지연되었다는 안내문이 수령되었고 이후 4월 18일 두 번째 면담, 5월 말 경 상우가 출소 후 조사관과 짧은 통화를 했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 상우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25일 “채식주의 요구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며” “진정인의 신념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유지한 채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 가석방과 출소

조은 | 2010년 6월 병역거부

재소자들은 매달 말일 오전 10시에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평일 30일’을 기준으로 출소하는지라 31일까지 있는 달이어도 30일에 출소하고, 만약 30일이 일요일이라면 평일인 28일 금요일에 가석방 출소합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출소 전달 10일에 가석방 인터뷰(가석방 대상자 교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일에 출소하기 위해선 전달인 10월 10일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4개월 정도의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수감된 지 1년 2개월~3개월이면 출소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워낙 돌발상황이 많고 예측불가능한 곳이 징역인지라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터뷰 받을 가능성이 높아도 막상 인터뷰 날이 다가오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인터뷰 당일 오전에 대상자여부를 통보받고, 인터뷰는 오후에 진행됩니다. 직원이 나눠준 서류에 출소 후 거주지와 연락처, 출소 후 계획 따위를 기입하고, 가석방 절차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출소 당일엔 최대한 빈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책과 물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면 본인도, 출소 마중 나온 이들도 고생입니다. 가능하면 출소 보름 전부터 짐정리를 해서 출소 일주일 전에는 한두 권의 책 정도만 남기고 전부 영치시킨 후 택배로 보내거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기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택배는 보고문에 ① 제목 : <영치금 사용 및 택배사용 신청서> ② 내용 : <“영치품 일체를 택배 보내겠습니다.” + 받는 이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 영치과로 보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출소 당일 짐 검사하다가 일기에 쓰인 수감기록이 문제가 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일기를 전부 폐기하는 조건으로 출소 시간을 30분 넘겨 겨우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가능하면 택배로 먼저 보내길 추천합니다.

출소복은 늦어도 출소 일주일 전에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접견 온 지인이 넣어주거나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출소복이 들어오기 어렵다면 수감됐을 때 입고 들어온 옷을 미리 ‘세탁 보고 전’ 을 통해 세탁한 후 입는 걸 권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면 법무부에서 츄리닝을 제공해줍니다.

출소 당일 오전 8시쯤 가석방 대상자들은 출소준비 장소로 모입니다. 그동안 일했던 노역에 대한 수당과 모아둔 영치금을 지급받고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들으며 가석방 증명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간단한 짐 검사와 함께 수용복을 벗고 출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석방자들과 도란도란 달뜬 수다를 나누다가 10시 되기 직전에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마중 온 지인을 만나 포옹을 합니다. 아이 좋아라. 기분 좋은 출소를 위해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출소한 병역거부자 이야기



## 내 삶을 거처간 한 부분

나동 | 2002년 9월 병역거부

출소 후 병역거부자들은 저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행을 가거나 한동안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 하거나, 돈을 벌기도 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심리적 상태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감 생활은 1년 남짓이지만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수감이 확정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마음고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옥 생활의 여파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세증,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말 못 할 트라우마로 정



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해진 해법이란 없습니다. 다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연대와 공감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CO자조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어도 좋고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이나 휴식과 치료 등을 병행하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 경제 생활은 사람에 따라 조건이 달라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병역거부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출소 직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마감 후에도 시민권에 일부 제약이 갈 수 있습니다. 병역을 중요한 판단 준거로 삼는 기업이나 공무원, 일부 전문직 등은 취업에 제약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에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병역거부는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아끼고, 세상과 나를 잇는 희망의 끈을 찾아 나선다면 병역거부 역시 자신의 삶을 거쳐 가는 수많은 순간 중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공백과 단절의 시간 뒤에

의민 | 2005년 4월 병역거부

### 상황 #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관람 중... 강동원이 수감되는 그 시점부터 울기 시작해서는 거의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울었다. 뭐 강동원의 엄청난 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 상황 #2.

역시 영화 보러가서... 〈아바타〉를 보러갔는데, 영화 시작 전 나오는 예고편에서 〈하모니〉 예고편이 나왔는데 역시 예고편을 보다가 눈물이 터져서는 영화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다.

위 두 상황의 공통점은? 영화를 보러간 것도 있지만 스크린에 감옥 장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하고 돌아온 일상생활. 병역거부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수감생활을 견디는 것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병역거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고민들은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신념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병역거부로 나타난 것이지 병역거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이 되는 1년 6개월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전

체에 있어선 매우 작은 부분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그 결정이 그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1년 6개월 수감생활은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백입니다. 수감되기 전에는 그 속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특히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는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 성찰을 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통 고민과 성찰보다는 투정과 짜증만 늘어나죠.) 그래도 결국 수감생활은 공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수감상태라서 이렇지 이제 출소하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야지, 하는 계획을 당연히 세우게 됩니다. 수감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기력을 준다면, 반대로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조급증도 안겨주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출소했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는 한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출소 이후 잠깐은 그간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 속에서 환영도 받고, 그러지만 그것도 잠시뿐.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감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정과 짜증은 먹이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도 자신이 마음먹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출소하면서는 뭔가 다 풀릴 것 같고, 자신이 중심일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 역시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잘못하면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 시에도 중요한 거지만 출소 이후에도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자신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은 공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만나는 다종다양한 사람들과의 기억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그리 유쾌한 공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억은 계속 자신의 삶에서 아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명만 봐도 한동안은 구토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감옥장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구요. 물론 이런 느낌은 주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데 계속 지우고 싶은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이익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불이익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니깐요.

하지만 공백과 단절에서 오는 아픔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무덤덤하게, 그냥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솔직하게, 난 이런 게 아프다,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 병역거부를 이야기 할 때는 주로 수감되어서 출소 할 때까지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이후가 더 길고 중요해요. 그 아픔을 적절히 치유하지 못한다면 병역거부라는 행위가 자신의 삶에서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삶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병역거부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 질문과 마주하며

타랑 | 2006년 7월 병역거부

“넌 왜 병역을 거부했니?”

질문이 과거형입니다. 마치 ‘병역거부’가 과거의 일인 것처럼.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기 나름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름의 이유’란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병역거부’가 그 사람에게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거부하는 것이 꼭 ‘병역’만이 아니라서 일수도 있겠지요. 물론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서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고,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줄로 정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건 새로운 사람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자기소개서의 군/필 여부 확인란을 통해 불편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병역을 거부하고 난 뒤 밥벌이가 목적인 일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젠 그런 질문 자체는 ‘순간적인’ 일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순간적이라고 한 건 대부분 그 질문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거부의 과정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등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사실, 병역을 거부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순간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설명해야 할 의무감도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그런 질문을 받아버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근데 꼭 대답해야만 하나? 이미 주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변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아닌데, 웬지 모르게 부담스럽습니다. 질문의 위력!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 설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화장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죠. 병역을 거부한 이유를 물었던 사람들에게서 ‘병역’ 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마치 ‘병역’ 은 질문할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그런데도 그 이유가 궁금한 척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뭘까요?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면 할수록 ‘병역’ 을 당연시하는 질문의 구조에 복종하는 건 아닐까요?

어떤 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된 질문은 이미 그 답의 범위를 정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허용범위는 질문자의 인식가능성에 기초해 있겠죠.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범위 내에서조차 이해가 안 되면 답을 바꿔야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바뀌어도 질문을 받은 사람의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변형된 답으로 대화가 종결될지는 몰라도 또 다른 가능성은 남습니다. 질문이 답을 지배하

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어떤 대답에 지배되는 상황. 역전의 연속. 병역을 거부한 이유란 것이 꼭 병역거부 이전에 존재해야만 할까요? 결과가 원인이 되듯 그 이유를 ‘병역거부’를 통해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혹, 거부행위 자체가 거부의 이유로 설명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압박감과 이유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혼란스러워하다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대답이 또 다른 이유가 되어 다른 질문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기도 하며 그래서 대화 전체가 의도와 달리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밥벌이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만 둘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도 이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 할 수도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 ‘병역거부’는 질문이 됐든 대답이 됐든 계속해서 과거형일 수가 없겠네요. 그때그때 이유가 달라진다고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란 게 꼭 하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넌 왜 병역거부를 하니?” 어쩌면 ‘지금’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겠네요.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거부가 일종의 행위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생각들도 그 행위를 구성하는 일부라면, 그런 느낌이나 고민들도 행위를 구성하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역을 거부하는 동안



철저하게 의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해오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로. 물론 그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거부행위를 설명해야하는 질문에 혼자서 대답한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병역을 거부하는 제 2의 이유는 꼭 '자기'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군 훈련 거부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



##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현역으로 입영한 뒤에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했던 강철민 씨나 촛불집회 당시 강제진압을 거부했던 이길준 씨처럼 특정 명령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군대 안의 군사주의나 위계질서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 한 유정민 씨처럼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철민 씨나 이길준 씨처럼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은 휴가를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대에 복귀하지 않기도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 병역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처음에는 군교도소에 수감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보통 병역거부자들과 똑같습니다. 대부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지요.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고 나면, 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고 나머지 형기를 채우면 출소하게 됩니다.

현역 군인이 병역거부 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병역거부를 막기 위해서 군대가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인데다가 여러가지 협박을 들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군대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추가로 병역거부자가 발생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역거부를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 포기한 현역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군대 안에서 병역거부를 하는 일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반 병역거부자들보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서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지만,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되며 약 8년 간 예비군 복무기간 동안 160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에 새롭게 종교적, 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

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되면 대개 수십만 원 내외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벌금을 내도 훈련은 없어지지 않고 이월되면서 다시 소집영장이 나오고 각각의 훈련 거부에 대하여 매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차례 벌금형이 누적되면 최초 몇 십만 원에서 시작된 벌금형이 몇 백만 원에 이르다가, 결국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 다시 소집 훈련을 거부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데, 이때에는 유예된 형에 대하여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경우에도, 1년 6월 징역을 선고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복역 후에도 다시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고 이를 거부하면 또 처벌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반복해서 처벌하는 것의 문제는 이미 법원, 국가인권위, 유엔에서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국가인권위는 예비군훈련거부 역시 병역거부와 동일한 사유이고 반복해서 훈련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도 그에 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고, 반복적인 처벌과 과중한 벌금으로 예비군 편성 기간 동안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형과 반복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ICCPR 14조에 관한 일반논평 32호에서 “군복무에 대한 거듭된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후속적인 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동일한 항구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밝히며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복적인 처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합헌결정을 내렸고, 18대 국회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없이 폐기되어 여전히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한 반복처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거부는 일반 병역거부보다 훨씬더 오랜기간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감당해야하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90조 1항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병무청 예비군안내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serve/reserve01/index.html](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serve/reserve01/index.html)

##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 7년째 재판 중 – 예비군 훈련 거부 사례

김정식 | 예비군훈련 거부자

2002년 6월, 스물여덟 늦은 나이에 입대했다. 입대 전에 오태양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당시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던 시기다. 다양한 인권 단체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실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던 터라 오태양 씨의 언론 보도는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입대 당시 나의 평화 감수성은 군대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끝일 줄 알았다. 2004년 첫 번째 예비군 훈련

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치열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참가, 성적 소수자를 이해하기 위해 동성애 인권단체 방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학생들과 함께 들으며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깊이 해나갔던 때다. 특히 이라크 파병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함께 하면서 전쟁과 군사주의, 국가폭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군사훈련에 대한 부담감은 단순히 내 양심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행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평화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일체의 군사 훈련은 받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7년 동안 34건의 재판을 받았다. 무한 반복 처벌에 따라 검찰로부터 벌금만 4천만 원 정도 누적 통지받았다. 2012년이 예비군 8년 차 마지막 해인데 지난 7년 간 받지 않은 모든 훈련이 또 다시 부과되고 반복 처벌되고 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 그나마 직장에서 배려를 해줘서 경찰조사, 법원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비군을 거부하면, 즉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당하지는 않는다. 보충훈련까지는 기회를 준다. 보충 훈련인 2차, 3차 소집 통지서를 받을 때면 고발할 수 있다는 예

고를 직접 혹은 문자로 한다. 고발을 당하면 2주 이내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

경찰 조사는 의외로 간단하다. 첫 조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과 불참한 사유를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한다. 첫 조사 외 반복 처벌에 따른 후속 조사는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분이면 충분하다. 해당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조사관 배정에 따라 담당 경찰은 계속 바뀌게 된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략 2주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10만원~2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검사에 따라 벌금액이 상이한데 평균 50만원이다. 벌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주일 이내 접수되었다는 우편물과 대략 4주 이내 재판 기일을 알리는 우편물이 전달된다. 혹시 재판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재판기일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반복처벌에 따라 한 달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할 경우 기일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출석 요구서와 함께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있는데 경험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면 된다. 주변에 무료로 변론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첫 재판에만 도움을 받고 혼자 진행해도 관계없다.



재판에 출석하면 검사는 아주 건성으로 1분도 안 걸려서 벌금형의 정당성을 짧게 설명한다. 그리고 판사가 물어본다. 왜 예비군을 거부하는지, 벌금형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등.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해 예비군 거부의 마음을 충분히 밝혔겠지만 구두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된다. 그럼 2주~4주 후 판결 선고일을 알려준다. 선고일에 출석하면 대부분 벌금형을 확정한다. 항소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합이라는 것이 있다. 예비군은 8년간 무한반복처벌된다. 그래서 매 건마다 별건으로 처리하면 엄청난 벌금의 압박을 받게 된다. 재판을 병합신청하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나의 경험상 생각해보면 대부분 판사들이 예비군의 이중처벌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판례를 보면 4,5년 간 대개 20여건의 사건이 병합되면 사회봉사 200여 시간, 벌금 200여 만 원, 집행유예 1년 정도를 판결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구속 사례도 있고 훨씬 많은 사회봉사 시간과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복불복이다.

예비군을 거부하면 처음 2,3년은 1년에 3,4차례만 경찰조사와 법원 출석을 하면 되지만 4,5년이 넘어가면 반복처벌에 따라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법원 출석을 하게 된다. 또한 혹시나 상황이 악화되어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8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 만큼 직장과 가정의 배려 그리고 스스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후원회 만들기



## 후원모임의 중요성

거부 행위의 부담과 책임을 병역거부자만이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병역거부에 공감하고 지지해왔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와 가장 가까운 이들은 후원모임을 조직하여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알리고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후원모임을 통하면 병역거부자의 수사·재판·수감 소식을 공유하거나 후원금 모금 같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는 외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수감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보통 친한 친구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후원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도 후원책(후원회장)은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러려면 미리 병역 거부와 지원 방식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거부자의 소식은 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전하게 되므로, 다른 병역거부자 후원모임의 카페/클럽/페이스북 페이지를 미리 둘러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후원금 모금

수감 전후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필요합니다. (수감 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 수감 후: 수감생활에 필요한 비용\_수감 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

하지만 후원금 모금은 단순히 필요한 돈을 모으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쉽게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후원주점이나 공연 등의 행사를 열어 병역거부자의 뜻을 알리고 격려와 지지를 모아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감 후 해야 할 일 - 외부와 소통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어 구치소로 들어가거나,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 형이 확정되면 검찰로 출두하여 구속됩니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일은 구속 당일 접견

을 가서 수용번호 등의 수감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감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꾸준히 바깥의 관심과 연대를 전하며 고립감을 더는 것도 후원 모임이 할 일입니다. 소통 방식은 크게 접견과 편지로 나뉩니다.

## 접견조정

접견은 하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접견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접견 담당자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

### 1) 미결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로 매일 접견 가능합니다. 근래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구속수사를 받거나 항소로 재판이 길어지면 미결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2) 기결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면 접견횟수가 월 4회로 바뀌며(4급), 분류심사 결과 대체로 2급을 받아 6회로 늘어납니다. 부족한 횟수를 i) 수감자와 가족 및 접견신청자들의 의사, ii) 월별 접견 시기 분포를 고려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 편지

접견횟수가 제한적이므로, 주로 편지로 많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1) 인터넷 서신(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다음날 4시경 전

달), 2) 일반우편서신, 2) 소에 마련된 접견서신용지에 쓰는 방법(당 일 전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는 소식을 우편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에 시간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 경험하는 시간의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바깥에서는 여러 일상에 치여 바쁘기 때문에 며칠이 금세 지나지만, 수감된 입장에선 무척 외로운 시간일 겁니다. 때로는 그 며칠의 시간에 힘들어지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 영치금과 영치품

수감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확인하여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치품은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좁으므로, 내보내는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책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면 다른 분들이 책을 보내주시거나 접견 가실 때 확인할 수 있어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제외하면 감옥에 직접 들여보낼 수 있는 품목은 한정돼 있으므로, 대부분 수감자가 소 내에 보유한 영치금으로 구매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영치금이 필요한 정도는 개인·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액수는 수감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영치금을 담당하시는 분을 미리 정해 구속 후 수감자가 지정하여 신청하면(확인하실 분

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필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http://www.moj.go.kr/ca/>, 공인인증서 필요) 및 교정민원 ARS(1544-1155)를 통해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수감기간, 소통이 제약된 상황을 꾸러가는 것은 후원모임에도 낯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후원모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1인의 후원회장(후원책)만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기 십상이지요. 때로 무척 번거롭고 벅찬 일인데도, ‘후원’이라는 말의 어감만큼 눈에 띄지 않기도 쉽고요. 하지만 후원활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병역거부와 연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 소통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되,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 병역거부 관련 책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말하지 못했던 것 (임재성, 그린비, 2011)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창작과비평사, 2010)

꽃섬고개 친구들 (김중미, 검은소, 2008)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외, 철수와 영희, 2008)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먼저 총을 내리겠다는 바보, 병역거부자 이야기 (하승우, 뜨인돌, 2008)

평화의 얼굴: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김두식, 교양인, 2007)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책세상, 2007)

별들의 노래:오종권 장편소설,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정에 선 젊은이들  
(오종권, 증명출판사,2007)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윤수중, 이학사, 2005)

양심적 병역거부: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이석우, 사람생각,  
200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그린비, 2004)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김두식,  
뉴스앤조이, 2002)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람생각, 2002)

##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국내 시민 단체

병역거부아카이브 <http://peacearchive.net>

전쟁없는세상 <http://withoutwar.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평화박물관 <http://www.peacemuseum.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org/>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amnesty.or.k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http://minkahyup.org/>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http://www.yangsimso.or.kr>

-외국 단체

WRI(전쟁저항자인터넷내셔널) <http://www.wri-irg.org/>

-국가기관

국가인권위 <http://www.humanrights.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병무청 <http://www.mma.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moj.go.kr/ca>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 병역거부 가이드북

2004년 7월 초판 펴냄 / 2012년 12월 1일 개정판 펴냄

**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자, 병역거부 후원인 / **기획** 전쟁없는세상 / **편집** 전쟁없는세상 / **디자인** 전쟁없는세상 / **인쇄제본** 한울타리

**펴낸이** 전쟁없는세상 / **펴낸곳** 전쟁없는세상 /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 / **이메일** [peace@withoutwar.org](mailto:peace@withoutwar.org) / **연락처** 02-6401-1873

**후원** 이 책자는 소셜펀치 후원모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백곰, 진냥, 유호근, 김풍치, 윤정화, 윤태완, 이윤덕희, 김태환, 최민아, 흐르매비, 유윤희, 조정의민, 지선, 미나, 이영덕, 승규, 구태희, 김훈태, 이화정, 양선화, 라흐쉬나, 박재현, 작은나무 님 고맙습니다.

『병역거부 가이드북』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에 따릅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